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 가게

인천 용현남초등학교

5학년 서예나

“파란색 아이스크림 주세요.”

“네, 지금 드립니다!”

이 아이스크림 가게는 날씨에 따라 변하는 하늘색에 맞춰 아이스크림을 판다. 골라먹는 색 아이스크림 가게는 이 마을의 최고 인기가게이다. 맛도 좋고 색깔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하늘이 푸를 땐 파아란 색 아이스크림이 나오고, 하늘이 노을 질 때는 주황색 아이스크림, 또 분홍색 아이스크림이 나온다. 또 밤에는 별이 박힌듯한 검은색 아이스크림이 최고 인기 메뉴가 된다.

하지만 이건 모두 지난 일. 지금은 오로지 회색, 단 한 색밖에 없다. 요즘에는 하늘이 미세먼지 때문에 온통 회색 빛이다. 때문에 아이스크림 가게에서는 다양한 색이 아닌 회색 빛 아이스크림만 판매하게 되었다. 이쁘지 않고 맛도 하나인 가게가 되어버린 아이스크림 가게에는 점차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결국 가게는 문을 닫게 되었다.

이 마을 최고 인기가게였던 아이스크림가게가 문을 닫자, 사람들은 모두 속상해 하였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본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이 말하였다.

“여러분, 속상해만 하지 마시고 예전 아이스크림 가게를 돌릴 방법을 생각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가 힘을 합치면 가능해요. 예전의 하늘로 돌아온다면, 아이스크림 가게도 다시 문을 열 수 있어요.”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은 하늘과 맑게, 공기를 되돌릴 방법을 말해주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을, 길거리에서는 담배피지 않기로, 많은 나무를 심기로 하였다.

그로부터 1년 후, 하늘과 공기는 다시 예전처럼 맑고 푸르게 돌아왔다. 골라먹는 아이스크림 가게도 아무일 없다는 듯이 다양한 색의 아이스크림을 팔게 되었다.

“자, 자, 여러분! 오늘의 인기메뉴는 맑은 하늘색 맛과 노을 빛 주황색 맛입니다!”